

‘이후의 가족드라마’와 친밀의 정동

—〈나의 아저씨〉를 중심으로*

백현미**

〈차례〉

1. 들어가는 글
2. 개인화 시대의 가족 변화와 돌봄 위기
3. 남성중심적 지역공동체의 낭만화와 계토화
4. 신체매개적 정동과 친밀의 발현
 - 4.1. 숨소리와 공명, 그리고 모방
 - 4.2. 몸냄새와 몸싸움, 그리고 모방
5. 나오는 글

국문초록

본고는 텔레비전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개인화 시대 가족상을 재현한 ‘이후의 가족드라마’로서 조망한다. ‘이후의 가족드라마’라는 명명은 다음 두 특이점에 근거한다. 첫째 이 드라마는 핵가족이 규범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가족 이후’의 상황을 다룬다. 이 드라마에는 기왕의 가족드라마가 다루은 3세대 대가족도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경제적 불안정성 때문에 생긴 특이 형태의 혈연가족과 1인 가구 가족들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돌보는 과제를 감당하며 가족적 유대를 실천한다. 둘째, 신체매개적 정동과 이에 기반한 친밀감을 구현하며, ‘가족적인 것’의 출현 토대를 시사한다.

‘이후의 가족드라마’로서 이 특징들은, 가족다움의 근거나 계기가 혈연이나 혼인이 아니라 생계와 주거 공유로 바뀌고 있는 현실, 가족적 관계의 입각점이 상호돌봄과 상호의존의 수행성으로 조정되고 있는 국면을 드러낸다. 개인화 시대 가족이란 제도적 호명이 아니라 신체매개적 정동의 밀도에 의해 구성되는 것임을, 상호 내밀한 것들의 교환을 통해 감정 공동체가 되는 것임을 효과적으로 극화한 것이다.

주제어: ‘가족적인 것’, 〈나의 아저씨〉, 이후의 가족드라마, 정동, 친밀감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4042721)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들어가는 글

TV 드라마의 가족 재현은 사회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된다. 가족드라마는 대부분 '결혼과 혈연을 매개로 한 가족을 가족의 존재태로 전제하고, 가족 구성원 사이의 권리와 의무의 갈등, 신의와 친애의 뒤를림을 통해 그리고 근래에는 여성 억압이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저해하는 억압 요인들을 통해 가족 제도과 문화의 균열 지점을 드러내면서, 결과적으로는 가족 간의 신뢰와 화합, 헌신과 희생, 애착과 애정을 확인하고 추구해왔다. 가족드라마에 대한 연구들 대부분도 이런 점들을 포착했다.¹⁾

신자유주의의 글로벌 확산과 더불어 가속화된 개인화 시대, '우리가 알던 가족'²⁾은 해체 중이다. 결혼 기피와 지연, 이혼과 별거의 증가, 출산을 급락과 노령화 확산 등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³⁾ 울리히 벡이 제안한 '개인화(individualization)' 개념은, 노동

-
- 1) 방송·여성학계의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에서, 인문·예술계의 영화·드라마 연구에서 가족 담론과 가족 재현의 특이성 논의가 축적되었다. 2000년 전후의 영화와 드라마에 나타난 가족 재현을 포괄적으로 논의한 대표적인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김훈순·김명혜, 「텔레비전 드라마의 가부장적 서사전략」, 『언론과 사회』 12호, 사단법인 언론과사회, 1996; 조항제·홍찬이·강승화·문소영, 「텔레비전 멜로드라마에서 나타나는 가족 표현의 변화」, 『한국방송학보』 21(6), 한국방송학회, 2007; 박명진, 「한국영화와 가족담론-1960년대와 2000년대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16, 우리문학학회, 2003; 백경선, 「김수현과 노희경 가족드라마의 대중성 비교 연구-2000년대 작품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백경선, 「김수현 가족드라마의 가족 담론 고찰」, 『한국극예술연구』 50, 한국극예술학회, 2015; 윤석진, 「한국 텔레비전 가족드라마의 가족자유주의 양상-KBS2 TV주말연속극을 대상으로」, 『어문논총』 34호,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19.
 - 2) 야마다 마사히로, 정화경 옮김, 『우리가 알던 가족의 종말: 오늘날 일본 가족의 재구조화』, 그린비, 2010.
 - 3) 한국사회 유자녀 핵가족의 형태는 199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변화, 1990년 50.4%, 1995년 48.2%, 2000년 42.2%, 2010년 37.0%로 급감하고 있다. 김혜영, 「'동원된 가족주의'의 시대에서 '가족 위협'의 사회로」, 『한국사회』 17(2),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6, 13면에서 재인용. 한편, 평균 가구원 수도 급격히 변했다. 주된 가구 유형이 1960-1970년대에는 7인 이상 가구가, 1980년에서 2005년까지 4인 가구가, 2010년에는 2인 가구가 그리고 2015년에는 1인 가구(2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유연성이 확대하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가족적 결속이 변화하고 개인의 삶이 노동시장에 철저하게 의존하게 된 상태, 가족이 아닌 개인이 재생산 단위가 된 상태를 강조한다.⁴⁾ 개인화 시대,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정상가족으로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역할과 권위는 “탈자연화”를 겪고 있으며 “규범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⁵⁾

본고는 <나의 아저씨>⁶⁾를 개인화 시대 가족 구성의 특이점을 재현한 ‘이후의 가족드라마’⁷⁾로서 주목한다. ‘이후의 가족드라마’라는 명명은 다음 두 특이점에 근거한다. 우선 이 드라마는 핵가족이 규범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가족 이후의 상황’을 다룬다. 이 드라마에는 기왕의 가족드라마가 다뤄온 3세대 대가족도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경제적 불안정성 때문에 생긴 특이 형태의 혈연 가족과 1인 가구 가족들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돌보는 과제를 감당하며 가족적 유대를 실천한다. 둘째, 신체매개적 정동과 이에 기반한 친밀감을 재현하며, ‘가족적인 것’⁸⁾의 구성 토대를 경험케 한다. 가

미진, 「가족구조의 변화와 노인돌봄정책」, 『월간 복지동향』 219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7, 20-21면.

- 4) 울리히 벡, 홍성태 옮김, 『위험사회』, 새물결, 1996, 150-155면.
- 5) 울리히 벡, 홍찬숙 옮김, 『자기만의 신』, 길, 2013, 166-167면. 편부·편모가족 및 재혼가족, 입양가족, 동거 가족(사실혼 커플 및 동성 커플)도 증가하고 있고, 조각보처럼 여러 인간관계들이 모여 복합적으로 가족적 유대감을 이루어 내는 패치워크 가족도 대안으로 부상 중이다. 볼프 바그너, 정미라 옮김, 『가족?』, 푸른나무, 2008, 166-176면.
- 6) <나의 아저씨>(총 16부작, 박해영 극본, 김원석 연출)는 2018년 3월 21일부터 5월 17일까지 방송한 tvN 수목드라마로, CJ E&M의 자회사인 스튜디오드래곤과 초록백미디어가 공동제작했다. 제31회 한국방송작가상 드라마 부문 수상, 제2회 더 서울어워즈 드라마 부문 대상, 그리고 2019년 제55회 백상예술대상 드라마 작품상과 작가상을 수상했다. 드라마 대본집도 출간되었다. 박해영, 『나의 아저씨』 1,2, (주)세계사컨텐츠그룹, 2022.
- 7) 이 용어는 필자가, 엘리자베트 벡-게른스하임의 글 제목(「가족 이후의 가족, 오늘날의 가족생활」, 울리히 벡 외, 한상진·심영희 편저, 『위험에 처한 세계와 가족의 미래』, 새물결, 2010)에서 ‘이후의 가족’을 차용해 작명한 것이다. 가족드라마가 ‘결혼과 혈연을 매개로 한 가족’을 전제한다면, ‘이후의 가족드라마’는 개인화 시대 가족 변화상을 재현하며 ‘가족적인 것’에 대한 상상과 실천을 자극하는 드라마를 말한다.

죽다움의 근거나 계기가 혈연이나 혼인이 아니라 생계와 주거 공유로 바뀌고 있는 현실, 가족적 관계의 입각점이 신체들의 상호돌봄과 상호의존의 수행성으로 조정되고 있는 국면을 시사한다.

가족 감정으로 논의되곤 하는 친밀감은, 시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신체매개적 정동의 경향성 속에서 출현한다. 자신을 필요로 하고 소중히 대해 주는 특별한 관계에서 느껴지는 친밀감은) 몸을 지닌 개체들이 상호의존하는 일상 속에서 느껴질 무엇이다. ‘어떤 느낌을 가진다거나 ‘이러저러하게 느낀다고 할 만한 관념으로서의 감정은, “정동적인 미시적인 힘들의 운동인 힘들 내지 미시분자들의 국소적인, 수동적인 중합을 거쳐 후행해서”¹⁰⁾ 산출된다. 친밀(감)은 신체매개적 힘들의 부딪침이라 할 만한 정동의 경향성에 대한 표상으로서의 감정이다.

최근 정동의 개념화와 이론화를 둘러싼 논의가 폭발적으로 확대되며 다양하게 분기 중인데,¹¹⁾ 필자는 신체의 행동하는 능력을 증강하거나 감

- 8) 류도향은 가족 패러다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가족적인 것’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그는 다양한 가족들이 파생되는 지반을 ‘불안정하고 상처받기 쉬운 유기체적 삶의 조건 속에서 지속가능한 상호의존성’으로 보고, “신체를 가진 개체들이……물질적·상징적으로 안전한 삶의 장소를 만들어가는 관계적 실천”에 의해 ‘가족적인 것’이 출현한다고 보았다. 류도향, 「가족적인 것의 개념: 연결의 정치학을 위한 시론」, 『가족과 문화』 제 33집 4호, 한국가족학회, 2021, 40-57면.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것은……주체의 수용성, 민감성, 취약성이 드러나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다.……가족되기의 힘은 ‘신체들’에서 발생한다.” 류도향, 「가족하기-되기」, 류도향 외, 『가까운 사이』,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21면.
- 9) 친밀한 (유사)가족적 관계는 인간 행복의 필요조건으로,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가 아니어도 인간에게 친밀한 관계는 절대 요청된다.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는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될 ‘확률이 높은’ 친밀한 관계이다. 아마다 마사히로, 함인희 외 옮김, 『가족 난민』, 그린비, 2019, 19-25면.
- 10) 이재준, 「협오의 정동」, 『현상과 인식』 통권 149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21, 44-45면.
- 11) 정동 용어와 개념, 정동 이론의 갈래와 유용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박현선, 「정동 이론적 갈래들과 미적 기능에 대하여」, 『문화과학』 86호, 문화과학사, 2016; 권명아, 「비교 역사적 연구를 통해 본 정동 연구의 사회정치적 의제: 여자 폐공포와 다스려질 수 없는 자들의 힘」, 『여성문학연구』 39,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함돈균, 「한국문학사 또는 한국 현대사와 정동(affect) 담론의 양태들-주체화, 운동,

소하는 전(前)개체적인 신체의 힘으로 정동을 개념화하는 논의, 몸·마음의 유기성을 강조하며 세계와의 관계 속에 있는 몸의 감응력을 강조하고 탐색하는 논의에 주목한다. 스피노자의 『에티카』에 따르면 정동(affectus)은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그러한 변용의 관념이다.(3부 정의3)¹²⁾ 몸·정신의 유기성을 강조하며 스피노자의 정동 개념을 논의한 들뢰즈의 해석에 따르면, 몸의 행동능력의 상승(증대·촉진)과 하강(감소·저해)은 각각 기쁨(laetitia)과 슬픔(tristitia)으로 지각되고, 좋음과 나쁨이라는 내재적 존재 양태들의 위상학과 연관된다.¹³⁾ 이렇게 정동은 몸과 정신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하나의 생물학적 실체에서 비롯됨을 드러내며, 외부의 몸을 느끼는 몸들의 변화를 강조한다. 정동은 몸 전체의 물질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장의(visceral) 힘이고,¹⁴⁾ 힘들의 마주침이며, 언어적 재현을 초과하는 이행이다.¹⁵⁾

본고는 <나의 아저씨>의 감각적 스토리텔링이 불러일으키는 몸(들)의 감응을 정동 발현으로 해석하는 모험을 감행한다. 매체연구와 문화연구, 퍼포먼스 예술 연구 등에서 정동이론으로의 전회가 전개되면서 전-언어

윤리학」, 『상허학보』 49, 상허학회, 2017; 안미영, 「현대문학 연구에서 정동 이론의 성과와 활용」, 『어문연구』 95집, 어문연구학회, 2018; 김창욱, 「마수미의 경험주의적 정동이론 비판-감정 연구와 문학 연구의 생산적 만남을 위하여」, 『한국시학연구』 63호, 한국시학회, 2020.

- 12) B. 스피노자, 강영계 옮김, 『에티카』, 서광사, 2008, 153면. 신경과학자인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스피노자가 ‘마음과 몸은 서로 평행하며 서로 연관되어 있는 절차로서 마치 한 물체의 양면처럼 모든 측면에서 서로를 모방’하는 점을 통찰했다고 해석했다. 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마음에서 관념으로 표상된다는 것이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임지원 옮김, 『스피노자의 뇌: 기쁨, 슬픔, 느낌의 뇌과학』, 사이언스북스, 2007, 242-251면.
- 13) 질 들뢰즈, 박기순 옮김, 『스피노자의 철학』, 민음사, 1981, 38-47면.
- 14)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옮김, 『가상계: 운동, 정동, 감각의 아쌍블라주』, 갈무리, 2011, 111-114면.
- 15) 그레고리 J. 시그워스·멜리사 그레그, 「미명의 목록 [장안]」,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옮김, 『정동이론』, 갈무리, 2015, 14-15면.

적/언어외적/언어 초월적인 영역들이 어떻게 근위감각들(촉각, 미각, 후각, 리듬, 운동감각, 자율신경계 등)과 서로 교차하는지를 이해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지만,¹⁶⁾ 근위감각들의 활성화 국면을 포착하고 그것이 지각에 앞서서 내장의 힘으로 잠재하는 상황을 언어로 기술하는 것은 어리석은 시도가 되기 십상이다. 드라마가 몸들이 영향을 주고받는 정동-기계라 해도,¹⁷⁾ 드라마에서 정동이 ‘느껴지는’ 국면을 기술하는 것은 난감한 과제이다. 정동은 잠재한 채 실재하는 힘들의 흐름이고, 실제 없이 출렁이는 것이다.¹⁸⁾ 일련의 국면들이 싹트고 교류하고 돌발하는 상황들을 포착해 정동 발현으로 해석하고, 그 변화하고 잠재하는 국면들이 수렴되어 특정 감정으로 지각될 가능성을 상상할 뿐이다.

<나의 아저씨>에 대한 선행 연구는, 신자유주의 환경, 정동, 공동체를 중심으로 삼아 진행되었다. 문강형준은 이 드라마가 신자유주의적 경제 환경과 연결된 지점을 통찰력 있게 지적했다. 권두현은 관계론적 존재론의 차원에서 텍스트 안팎을 분석하는바, 텍스트 밖 소셜 네트워크상에서의 담론을 젠더정치 및 정동정치로 설정하고, 텍스트 안 서사의 맥락을 ‘정동적 신체 이치안과 ‘윤리적 주체 박동훈’의 관계로 정리했다. 정동 개념을 드라마 연구에 적용한 유익한 선례이다. 김세준과 구은정은 ‘후계동 공동체’의 특이성에 주목하며 레트로토피아적 공동체 윤리를 강조했다

16) 그레고리 J. 시그워스·멜리사 그레그, 위의 책, 26면. 한편, 브라이언 마수미는 퍼포먼스 예술가 스티락의 프로젝트를 분석한 글을 발표한 바 있다. 브라이언 마수미, 앞의 책, 2011, 158-228면.

17) 니콜라스 리다우트는 연극을 정동-기계(affect machine)라 했고, 에린 허리는 느낌-작업(feeling-work), 느낌-노동(feeling-labour)이라 했다. Erin Hurley, *Theatre & Feeling*,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2010, pp.8-9. 무대 드라마인 연극에 대한 것이지만, 영상 드라마에도 해당된다고 본다. 드라마란 모름지기, 배우의 몸들을 경유해 등장인물의 몸을 느끼고 그 몸의 내부 감각에 관객의 몸이 반응하는, 몸들의 만남이고 몸들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18) 원제가 *Ordinary Affects*인 책을 번역한 신해경의 문장(“정동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이 무척이나 어렵다.……실제 없이 흐르고 쇠도하고 출렁이는 것이기 때문이다”)에서 가져온 표현이다. 캐슬린 스튜어트, 신해경 옮김, 『투명한 힘』, 밤의책, 2022, 12면.

평했다.¹⁹⁾ 본고는 ‘이후의 가족’이 출현하는 토대를 재현한 ‘드라마’라는 데 입각해, 이 중심어들의 파장과 의미를 재설정하게 될 것이다.

2. 개인화 시대의 가족 변화와 돌봄 위기

<나의 아저씨>의 주요 공간은 신자유주의 시장 확대와 IMF 한파가 몰아친, 글로벌 기업 삼안E&C와 서울의 낙후 지역인 후계동이다. 1화의 첫 시퀀스 ‘사무실 무당벌레 소동’은, 주인공격인 ‘나’와 ‘아저씨’를 삼안 안전진단 3팀의 파견직원과 부장직급 정규직으로 소개한다. 파견적인 지안이 받는 무시와 차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정규적인 박동훈이 감내할 직장 내 갈등과 실적 압박 등도 만만치 않다. 후계동 주민들의 직업도 안정적이지 않다. 40,50대 남자들은 조기 퇴직해 2차 직업을 전전하는 중이고, 20대 청년들은 일용직이나 대부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동훈과 지안은, 실업과 빈곤, 고령화가 결합되어 형성된 특이한 혈연가족에 속한다. 70대 노인 변요순과 사는 중년의 세 아들 박상훈, 박동훈, 박기훈은 영락없는 썩어루족이다. 첫째인 상훈(49세)은 파직과 사업 실패 이후 부인과 별거하고 엄마네 집에서 산다. 막내 기훈(42세)은 단편영화로 칸 영화제에 출품한 적이 있지만 첫 장편영화가 엮어진 후 차기작 없이 영화관을 들락거리는 처지로, 결혼한 적도 분가한 적도 없는 불박이 썩어루이다. 동훈(45세)은 결혼한 핵가족의 가장이지만, 노모와 형제들에게서

19) 문강형준,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조현민과 이명희의 갑질, <나의 아저씨>」, 『문학동네』 95, 2018; 권두현, 「관계론적 존재론의 정동학-〈나의 아저씨〉의 안팎에서 벌어진 젠더정치 기술적 차원에 관하여」, 『한국극예술연구』 66집, 한국극예술학회, 2019; 김세준, 「공동체적 윤리에 대한 초월적 상상력 고찰-TV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대상으로」, 『스토리&이미지텔링』 21집, 건국대학교 스토리엔이미지텔링연구소, 2021; 구은정, 「공동체 재현의 정치학-〈나의 아저씨〉의 레트로토피아 vs. <갯마을 차차차〉의 퓨토피아」, 『여성학연구』 제32권 제1호,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22.

분가하지 못/안 했다. 중년 아들이 노모를 돌보며 노모에 의존하는 가족, 신켄거루족이다.²⁰⁾ 이지안(21세)과 할머니 봉애(70대 중반)는 조손가족이다. 청각장애자인 봉애는 도망간 며느리가 남긴 빛에 시달리며 손녀 지안을 키웠는데, 이제는 홀로 거동조차 할 수 없다. 지안은 사채업자의 행패로부터 할머니를 보호하려다 살인을 저질렀고,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풀려났지만 죽은 사채업자의 아들 광일이 퍼붓는 폭력에 시달리며 할머니를 돌보는 손녀가장이다.

40대 남녀의 일상을 꺾진하게 재현하는 듯한 이 드라마에 부부·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결혼한 경우 대부분 동거하는 자녀 없이 별거 중이거나 파혼 상태이고, 결혼하지 않은 경우는 여타 가족 구성원 여부를 알 수 없는 1인 가구이다. 상훈의 아내 조애련(45세)은 맘머느리로서 제사나 시어머니 생일 모임은 꼬박꼬박 챙기지만, 신용불량자인 남편과는 별거 중이다. 동훈의 아내 강윤희(42)는 결혼 후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었는데, 남편과 침실을 따로 쓰는 준별거 상태다.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도준영(42세)은 결혼으로 로얄 패밀리에 들어갔지만 금방 파혼 당했고, 대학동기였던 윤희를 유혹하고 선배 동훈을 도발한다. 동네술집 정희네의 주인 정정희(45세)는 연모했던 윤상원(45세)을 그리워하며 혼자 산다. 윤상원은 학력고사에서 만점을 맞은 후계동의 수재인데 일찌감치 속세를 떠나 중이 되었다.

핵가족의 와해 상황은 이 드라마에 ‘아버지’ 즉 아버지의 지위와 역할을 행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데에서도 확인된다. 상훈과 동훈

20) 켄거루족은 일반적으로 만 25세를 기준으로,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에게 의존하여 사는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일본에서는 패러사이트 싱글(寄生獨身, parasite single), 영국에서는 키퍼스(KIPPERS: Kids in Parents Pockets Eroding Retirement Saving)라 불린다.

일본에서 버블경제 시기였던 1980년대-90년대 초반의 패러사이트 싱글은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즐기기 위해 부모와의 동거를 주체적으로 선택한 반면, 버블경제가 붕괴된 글로벌 시장 경제하인 1990년대 후반 이후의 패러사이트 싱글은 고용 불안정 심화로 자립을 포기하는 식으로 ‘변질’되었다. 야마다 마사히로, 앞의 책, 2019, 78-89면.

은 자식을 둔 아버지인데, 일상 속에서 아버지 노릇을 하는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상훈은 딸 결혼식장 장면(1화)에서조차 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미국 유학 중인 동훈의 아들은 카카오톡 페이스통화 화면상에 얼굴을 보일 뿐이고, 동훈이 아버지 노릇을 하는 모습은 아들의 숙제를 위해 각테일쇼 동영상을 촬영할 때뿐이다(8화). 무엇보다 특이한 건, 이 드라마의 주인공격인 삼형제와 지안이 아버지 없는 존재로 그려졌다는 점이다. 삼형제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위로했던 어른으로 언급될 뿐이다. 지안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런 정보가 없다. 사채빚을 남기고 도망친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는 빚조차 남기지 않은 존재이다.

그리고 사회초년생인 20대 인물과 사회말년생인 60-70대 인물은, 1인 가구인 혼자 가족이²¹⁾ 대부분이다. 지안 주변의 20대 인물들은 혈연관계로 연관된 사람들이 주변에 보이지 않는 혼자 가족으로 보인다. 일찌감치 부모 세대와의 관계가 끊긴 것처럼 보이는 게임 중독자 송기범(21세)은 지안이 떠안은 사채빚 중에 자신의 몫도 있어 이런저런 부탁을 들어준다. ‘영광대부’라는 사채 사무실을 운영하는 이광일과 중수는 20대 중반이다. 광일은 사채업을 하던 아버지가 지안의 손에 죽자 지안의 다른 빚까지 사서 빚 독촉을 하며 집착한다. 노인들 대부분도 배우자가 없고 자식도 없는 혼자 가족이다. 여성노인(변요순, 봉애)은 켄거루가족과 조손가족의 형태로 혈연가족 관계를 유지하지만, 남성노인은 영락없이 혼자이다. 삼안의 창립자 장항구 회장(75세)은 자식이 없어 회사를 이끌 사람을 물색 중이다. 청소부인 춘대(60대)는 지안의 초등학교 졸업식 때 단둘이 찍은 사진을 간직한 채 지안을 지켜주는데, 그의 주변에도 혈연가족은 보이지

21) 가족(families)과 가구(households)가 동의어는 아니다. 본고에서는 1인 가구인데 결혼이나 혈연에 기반한 인간관계가 부재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혼자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싱글화는 사회 현상이다. 사회 전반적 차원에서 싱글 숫자가 증가하는 동시에, 개인의 생애주기 차원에서도 싱글로 보내야 하는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야마다 마사히로, 위의 책, 2019, 13면.

않는다.

이렇게 <나의 아버지>는 특이 형태로 잔존하는 핵가족과 혈연가족, 만연하는 혼자 가족을 재현하면서, 가족의 중심 문제를 새롭게 설정한다. 결혼을 둘러싼 제도나 관습이 아니라 성인들의 일상 생존 환경을, 육아와 자녀 교육 중심의 재생산 영역이 아니라 성인 부양 중심의 비-재생산 영역에서 출몰하는 위기를 극화한다. 고령 인구가 증가한 혼자 사회의 가족 서사답게 무연사에 대한 공포와 불안, 고립감과 돌봄의 문제를 전면화한 것이다.

1회에서 보이듯 동훈과 지안은 가족 돌봄과 부양의 문제로 곤경에 처해 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다. 동훈은 이미 아파트 전세금을 대출받은 마당에 무직인 형제들 장사 밀친을 용자받을 수 없는지를 묻는 노모의 부탁에 마음이 무겁다. 지안은 상속된 빚 때문에 광일의 빚 독촉과 폭력에 시달리고, 요양원비와 간병비를 낼 수 없어 할머니를 침대째 물고 야반도주한다. 동훈이 잘못 전달된 뇌물성 상품권을 받고 흔들린 것도, 지안이 그 상품권을 빼돌린 것도, 이들 각각이 가족의 경제적 불안과 돌봄을 감당하는 과업을 혼자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위험을 감수한다. 지안은 할머니와 생존하기 위해 도준영의 핸드폰을 가로채 접근해(2화) 거래를 자원하고, 동훈의 핸드폰에 도청프로그램을 심는다.(3화) 동훈은 가족의 마음을 지키며 생존하기 위해 망치를 들고 주택업자를 찾아가 기물을 파손하며 위협하고(4화), 사내 경쟁과 불신의 압박 속에서 비밀리에 입수된 준영의 통화기록을 점검한다.(5화)

동훈과 지안은 가족 구성원의 고통과 쇠락과 죽음에 대한 감수성으로, 나이와 성별, 정규직/파견직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지지하게 된다. 노모와 형제가 살 집을 마련해주고 표 내지 않으며 생활비와 용돈을 내놓는 동훈은 이런 감수성과 됴됨이로, 할머니의 생존도 돌보고 미구의 죽음도 상상해야 하는 지안의 형편을 짐작한다. 동훈은 지안이 할머니를 카트에 태워 계단을 내려오는 걸 도와준(4화) 이후, '지 식구 건사하는 손

녀가장 지안에게 장기요양보험 신청 정보도 알려주고(7화), 요양원 입소를 도와주고(10화), 지안이 길거리에서 고백할 때도(11화) 도망 중에 전화했을 때도(14화) 할머니 장례식은 알리라고 당부하고, 결국 지안의 할머니 장례식과 납골함 안치의 일정을 함께 한다(16화). 동훈과 지안은 돌봄을 행하며 유대하는 것이다.

3. 남성중심적 지역공동체의 낭만화와 계토화

이 드라마는 거의 매회 지하철의 굉음과 지하 통로를 보여주는 신을 설정, 동훈과 지안이 오가는 직장인 삼안E&C와 거주지인 후계동 사이의 물리적 거리와 격차를 보여준다. 후계동은 지하철의 밀도와 속도를 한참 견뎌야 겨우 근처에 이를 수 있는 곳이고, 철로 앞 신호등이 내는 경고음이 일상에서 들리는 곳이고, 전봇대 등불이 밝히는 골목길과 달동네 계단이 촘촘히 이어지는 곳이다. 후계동은 초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후기 근대 사회 속에 잔존하는, 발전의 중심축에서 벗어난 곳이다.

낙후된 채 남겨진 근대적 도시 공간으로서의 이 후계동은, 직장에서 내몰린 40대 지역 토박이 아저씨들의 나라이다. 상훈은 뇌물 받다가 22년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고, 부인이랑 장사하다 빚지고 현재는 신용불량자라 아파트 수위로도 취직이 안 된다. 권식은 은행 부행장하다 퇴직 후 모텔에 수건 대는 일을 하고, 진범은 자동차연구소 소장이었다가 지금은 미꾸라지 수입 일을 하고, 제철은 제약회사 이사 출신으로 여러 장사를 전전하는 중이다. 후계동은 직장을 나온(혹은 밀려난) 후 자영업에 뛰어들, 유라의 말에 따르면 일찌감치 망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의 속도에서 비껴난 채 일상을 유지하는 이들 후계 패 밀리는 변요순 씨의 돌봄과 정희의 연정에 의존하는 남성중심적 식사 공

동체이다. 후계 패밀리의 이지트인 정희네가 술집이지만 밥집처럼 보이는데,²²⁾ 이는 삼형제의 노모 변요순 씨가 정희를 딸처럼 챙기는 한편, 식재료를 손질하고 계절 안주를 만들며 아저씨들의 술판을 보살피기 때문이다. 이 지역공동체에서 변요순 씨의 구심력은 자못 강력해서, 상훈의 아내는 별거 중에도 시댁 제사를 챙기며 후계 패밀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식구냐 아니냐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표기보다 더한 가족의 징표이다.

이 남성중심적 후계 패밀리는 상상한 이야기가 실현되는 극구조를 통해 한껏 낭만화된다. 1화에서 취기가 돈 삼형제는 아저씨들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함께 상상한다. 상훈이 기훈에게, 퇴직 후 이혼당하고 문상객 없는 노모 장례식을 치르며 좌절하다 갑자기 나쁜 놈이 되어 돈 벌고 맘껏 날아보는 중년 아저씨들의 나라를 영화로 만들라고 하고, 동훈은 여자도 빠뜨리지 말라며 끼어든다. 직장에서 내몰린 아저씨가 주인공인, 여자와 돈과 모험과 장례식을 버무린 해피엔딩 이야기. 이들 삼형제는 자신들의 고민과 욕망을 투사한 이 이야기 열개가 예상치 못한 디테일과 반전을 갖춘 이야기로 발전하고 현실화되는 걸 경험한다.

취기로 의기양양한 아저씨들의 찌질한 일상은 음악과 시각 이미지의 유머러스한 사용에 의해 활력 넘치는 모험으로 각색되고는 한다. 축구장 싸움판에서 줄행랑치다 패딩이 철망에 찢기고 오리털이 풀풀 휘날리는데도 이를 모른 채 기세등등하게 활보하는 상훈과 기훈의 모습 위로 “폭풍처럼 다가오는 그 사나이, 바위처럼 믿음직한 그 사나이”라는 노래가 응원가처럼 흥겹게 울린다(6화). 동훈이 상무 후보가 됐다는 소식에 상훈이 대뜸 조화들이 도열한 장례식장의 상주 노릇을 상상할 때(9화) 그리고 상훈이 장판 아래 5만원권을 모아 홍콩영화처럼 블랙수트 검은 라이방 끼

22) 구은정은, 정희와 동훈의 어머니가 ‘어머니 여성’으로, 동네 술집 정희네가 자궁으로의 회귀를 완성하는 레트로토피아로 현상되었다고 분석했다. 구은정, 앞의 글, 160-162면.

고 비싼 차 몰고 비싼 호텔에서 묵는 계획을 발표할 때(15화), 이들의 황당한 상상은 유머러스한 효과음악에 의해 호기롭게 정리된다. 형제청소방의 전용차 다마스는 움직이는 인상화로 표현된다. 차체가 작고 붕긋한 다마스는 회전 시 바퀴가 들리기 십상이다. 상훈이 사거리 좌회전에서 엑셀을 밟아버리자 원심력으로 날아갈 듯 휘청거리다 아예 쿵 자빠져버리기도 하고(3화), 급브레이크를 밟자 뒷바퀴를 들었다 코 박고 멈추는 만화적 형상으로 착지하기도 한다(12화).

후계 패밀리는, 지안을 포용하는 식사 공동체로 그려지면서 더욱 낭만화된다. 지안이 후계 패밀리에 속한다는 것은 후계동 사람과 술과 밥을 함께 먹는 사람, 즉 식구가 된다는 의미이다. 식당 잔반을 챙겨 끼니를 해결하곤 하는 지안은 동훈에게 밥을 사달라며 접근한다. 지안은 뇌물 받는 걸 봤다는 분위기를 풍기며(1화) 그리고 상품권 혐의가 벗겨져 고마워 할 때(2화) 동훈에게 밥을 사달라고 한다. 동훈은 두어 번 사주다 불편하다고 거절하지만, 지안이 자기를 안다고 느낄 무렵부터는 형제들에게 지안을 소개해주고(5화) 단골술집에서 밥을 함께 먹고 할머니 드릴 음식을 포장해 보낸다(7화). 술이나 밥을 함께 먹는 식구 같은 사이가 되자, 동훈은 지안을 정희네 단골 아저씨들에게 소개하고, 이 아저씨들은 골목길을 나란히 걸으며 밤길 배웅을 해준다(12화). 나중에 지안은 도망치다 돌아와 오갈 데 없게 되자 정희네에 머물기도 한다(15화). 삼형제는 부를 사람 하나 없이 행한 지안의 할머니 장례식장을 화환으로 메우고 조기축구회 회원들을 불러 조문케 하고, 검은 수트를 입고 장례식장을 지킨다(16화). 후계동 뜨내기 지안이 지역공동체와 연결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남성중심적 가족주의가 잔존하는 이 후계 패밀리의 시대착오적 폐쇄성은, 핵가족의 심리상태를 견지한 동훈의 아내 윤희에 의해 지적된다. 삼형제와 정희네를 돌보며 후계 패밀리의 중심을 지키는 변요순 씨는 어머니.아들의 가부장제적 모성을 자연화하며, 아들보다 잘나가는 며느리 윤희를 버거워한다. 반면, 핵가족의 심리상태를 견지한 즉 친족과 지역사회

에서 벗어난 개인들의 애정적 감정적 연대를 중시하는²³⁾ 윤희로서는, 부모와 형제, 동네 친구들이 항상 최우선인 동훈의 혈연 지역 중심주의가 버겁다. 그래서 동훈과 윤희는 부부이지만 식구는 아니다. 동훈은 퇴근길에 뭐 사갈까, 라고 윤희에게 묻기도 하지만, 거의 매일 형제들과 저녁 시간을 보내다 귀가한다. 이들이 사온 음식이나마 식탁에서 함께 먹는 장면은, 윤희의 외도를 동훈이 알게 되고 동훈이 알고 있다는 걸 윤희가 알게 되었을 때 즉 서로가 안다는 걸 숨기려 애쓸 때 처음 나온다(11화). 함께 식사하며 식구 연기를 하는 것이다. 악에 받쳐 싸우는 중에 윤희는 “뭐 하냐고 물어보면 식구들이랑 밥 먹는다고. 어떻게 식구들이란 말이 나와? 거기 나는 없는데! 거기 나는 없는데!”(12화)라고 소리친다. 윤희는 동훈의 식구가 되는 데 거듭 실패한다. 그래서 윤희는 불륜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지안을 돕지만(15화), 후계로부터는 더 멀리 떠나간다.

이렇게 후계 패밀리는 도시의 중심축에서 벗어난 낙후된 지역의 공동체이고, 직장에서 밀려난 중년 아저씨들의 공동체이고, 젠더 불평등에 아예 무감각하거나 결국 모른 척해버리는 사람들에게 의한 생활밀착형 가부장제가 여전한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가 레트로토피아로 그려졌다지만,²⁴⁾ 도시의 외곽에 사는 중년 아저씨들만의 공동체로 계도화된 채 재현된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후계동에는 그곳에서 성장한 정정희와 조애련(상훈의 아내), 불박이로 살게 된 동훈의 어머니가 머물 뿐, 윤희도 지안도 유라도 그곳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후계 공동체는 현재의 우리가 그리워하며 되찾으려 하는 과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아직 있는 과거, 미래일 수 없는 과거로 제시된 것이다.

23) 핵가족이라는 근대가족은, 친족 및 지역사회로부터 벗어난, 개인의 행복과 낭만적 사랑에 기초한 애정적 감정적 연대이자 사적 영역을 중시하는 일종의 심리상태로 규정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김혜영, 앞의 글, 19면 참고.

24) 김세준은 경쟁사회의 비윤리성을 돌파하는 공동체적 윤리가 드라마화되었음을, 구은정은 젠더 불평등을 보임에도 레트로토피아로 표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트로토피아란 익숙한 과거로 돌아가려는 움직임, 과거에서 비전을 발견하려는 움직임을 말한다.

4. 신체매개적 정동과 친밀의 발현

<나의 아저씨>에는 우리가 아는 가족다운 가족이 없음에도 (유사)가족에 경험이 강력하게 이뤄진다. 시공간을 공유하는 관계에서 교류될 만한 내밀한 감각자극들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감각적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안과 동훈 사이에 그리고 후계동 주민들 사이에 형성되고 교류되는 몸들의 감응을, 시청자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드라마의 시작 부분에서 몸의 생명력이 바짝 마른 것처럼 보이던 동훈과 지안, 삼형제와 후계 패밀리들은, 상호의존과 돌봄의 일상 속에서 접촉하고 부대끼고 관계하면서 자유롭게 존재 역량을 표현하게 된다. 신체매개적 에너지 흐름 가운데, 친밀한 ‘가족적인 것’이 출현하는 것이다.

4.1. 숨소리와 공명, 그리고 모방

지안과 동훈은 회사에서건 집에서건 좀처럼 말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 고립된 사람으로 보인다. 지안은 후계동 언덕진 달동네 계단 끝 집의 부엌조차 딸리지 않은 단칸방에서, 할머니를 수발하고 인스턴트 커피로 끼니를 때우며 산다. 험거운 겉옷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맨 발목을 시리게 내놓은 채 밤낮없이 이런저런 일자리를 오간다. ‘아침에 갈 데 있는 집안 유일의 직장인 동훈은 후계동의 두 집, 노모와 늙어가는 형제가 사는 협소한 아파트와 분가해 사는 적막한 아파트를 오간다. 자신이 복개된 곳에 잘못 지어진 낡은 아파트 같다고 생각하면서 성실한 무기수처럼 기차길 건너 골목길 따라 출근하고 퇴근한다.

말없는 가운데 위협을 무릅쓰곤 하는 이들의 행동은 풍부한 감각적 이미지에 의해 생동한다. 1회에서 동훈은 위협하게 치솟은 굴뚝에 오른다. 굴뚝 안전 진단 검사를 나갔을 때 드론이 고장 나자 직접 굴뚝에 올라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만만치 않은 체력과 고지식한 책임감, 불안한 심리상태 등을 인상적으로 보여준다. 지안은 요양원비 독촉을 받게 되자 할머니를 침대에 끌고 나와 언덕을 내려간다. 한겨울 시린 보름달이 더욱 커 보이는 높고 경사진 곳을 병원침대를 밀며 도망치는 모습은 애착과 절박함, 날렵함을 등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붉고 말랑한 무당벌레와 연시를 매개로 접촉한다. ‘사무실 무당벌레 소동’ 시퀀스에서 두 손 모아 무당벌레를 잡으려는 동훈과 무심하게 탁 내리쳐 죽이는 지안이 대비되고, ‘동네 슈퍼’ 신에서는 지안이 계산대에서 빼놓은 연시를 동훈이 사들고 나오는 식으로 연결된다. 이 1화에 설정된 굴뚝과 보름달, 그리고 연시 이미지는 4화 ‘카트에 탄 할머니와 보름달’ 시퀀스에서 다시 변주된다. 동훈은 지안이 챙기지 못한 연시를 주운 채 골목을 기웃거리다 카트를 잡고 덜컹거리며 계단을 내려오는 지안을 돕게 되고, 지안은 카트에 탄 할머니와 옹벽 위에 높이 뜬 보름달을 조용히 올려다 볼 수 있게 된다.

시각적·촉각적 감각으로 표현되고 연결되던 이들은, 도청을 매개로,²⁵⁾ 숨소리를 듣고 몸의 진동을 느끼는 관계로 변화한다. 숨은 생물체로서의 인간에게 가장 내밀하고 친밀한 접촉 감각이다.²⁶⁾ 4화의 에피소드는 이를

25) 권두현은, 〈나의 아저씨〉에서 도청을 매개로 한 자극감응성 혹은 신체 감응성 재현이 이뤄졌음을 특기하며, 도청을 통해 감응하는 지안은 정동적 주체로, 박동훈은 정동과는 무관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윤리적 주체로 현상되었다고 했다. (권두현, 앞의 글, 85-86면) 지안-동훈을 정동적 주체-윤리적 주체의 구도로 보는 관점은 구은정의 논의 (구은정, 앞의 글, 158-159면)에서도 이어졌다.

필자는, 도청을 매개로 한 신체 감응성 논의에 동의하지만, 정동적 주체 및 윤리적 주체라는 개념과 그 개념의 적용(특히 지안과 동훈을 정동적 주체와 윤리적 주체로 구별하는)에 동의하지 않는다. 동훈도, 지안만큼이나, 정동적 주체이다. 스피노자의 정동 개념을 재논의하며, 몸의 활동능력 상승/하강이라는 내재적 존재 양태를 좋음/나쁨이라는 윤리적 가치와 연결시킨 들뢰즈의 해석에 입각한다면, 동훈과 지안은 둘 다 정동적 주체가 되면서 윤리적 주체가 된다.

26) 데스몬드 모리스는 인간의 신체적 접촉을 친밀 행위로 다루면서, 몸 안에 있던 태아 시절, 어머니의 폐로부터 호흡으로 생기는 리드미컬한 압박과, 걸을 때 생기는 부드럽고 규칙적인 진동을 느낀다고 했다. 데스몬드 모리스, 박성규 옮김, 『인간의 친밀 행동』,

극적으로 드러낸다. 지안은 자기 방에 무단 침입한 광일에게 “내 숨 쉬는 공간에 네 숨결 남아 있는 거 못 참아. 행여 숨 쉬다가 네 숨결 마실까, 그래서 그 인간 숨결까지 마실까”라고 절규하고, 폭행을 당하며 무단 침입을 안 한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이렇게 숨 쉴 공간, 숨 쉬는 순간을 갈망하는 지안은, 도청으로 듣게 된 동훈의 숨결에 전율한다. 동훈은 형이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엄마가 봤다는 것을 알게 되자 주택업자를 찾아가 망치로 사무실 벽체를 두들기며 사과하도록 만들고 거리로 나와 숨을 터뜨린다. 지안은 동훈이 가족을 지키려 거칠게 맞서는 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를 때리던 사채업자에게 칼을 들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고, 동훈이 숨을 터뜨리는 순간, 그 숨소리를 들으려 숨죽인다. 도청을 통해 몸이 내는 숨소리를 듣고, 그 고유한 진동수를 갖는 타인의 숨소리에 공명하는 사건이, 초개체적 정동의 순간들이 발생한 것이다.²⁷⁾

5화 ‘모욕의 회식’ 시퀀스에서는, 이 초개체적 정동이 숨소리의 이어짐과 겹침으로 표현된다. 회식자리에서 동훈은 대표이사 도준영과 윤상무에 의해 그리고 팀원들의 어설픈 편들기로 모욕을 당하는데 이를 본 지안이 동훈 뒷담화를 하는 김대리의 뺨을 때린 것은, 노모와 형이 당한 모욕을 풀어준 동훈의 행동에 동조화한 것이다. 이들의 동조화 상태는 숨소리의 겹침으로 이어진다. 모욕당한 동훈이 기차길 옆 눈길에 미끄러진 채 한동안 일어나지 않는 장면과, 지안이 도청으로 동훈의 숨소리와 기차 소리를 들으며 달려가는 장면이 교차편집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동훈과 지안이 내는 거친 숨소리가 겹쳐진다. 동훈의 고통과 지안의 연민이 그렇게 진동한다.

이 시퀀스 이후 숨소리는 라이트모티브처럼 반복되며 장면들을 연결하

지성사, 2003, 16면.

27) 거울신경체계의 ‘체현된 시뮬레이션’에 의해 발생하는 느낌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거울신경세포에 대한 많은 언급이 시각에 중점을 두지만, 거울신경세포는 청각을 위해서도 존재한다. 안나 김스, 「정동 이후-공감, 동화 그리고 모방 소통」, 펠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앞의 책, 321면.

고, 지안과 동훈의 유대를 정동적 차원으로 강조한다. 지안은, 라이브로 혹은 녹음으로 도청을 하면서, 동훈이 자신에게 한 말들에 그리고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에 몰입한다. 죽은 아버지의 기일이라고 패악을 부리는 광일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지안은 동훈이 자신에게 했던 ‘착하다라는 말을 반복해 듣고(6화), 동훈의 숨소리가 한강변에서 나자 불안해 달려가고, 퇴근길 동훈과 함께 걷는 우연을 만들려 허둥대고, 늦게 귀가하는 동훈의 뒤를 따르려 골목길을 질주한다(9화). 동훈도, 지안이 뒤따르며 내는 숨소리에 반응하듯, 곁을 내주고 술과 밥을 함께 나눈다. 동훈이 단골술집 바쪽에 지안과 ‘나란히’ 앉아 김 대리 뺨을 때려줘 고맙다고 친절하게 마음을 드러내는 장면은, 취기와 온기가 혼류하듯, 스텝 프rinting 기법으로²⁸⁾ 연출되며 강조된다(6화). 동훈은 그 단골술집에서 처음으로 지안과 함께 식사하며 할머니에게 드릴 포장 음식을 챙기고, 어느 날에는 단골술집에서 지안을 찾아 두리번거리다 (도청으로 듣고) 마침 도착한 지안과 마주 앉아 위로의 말을 듣고(7화), 집으로 가는 길 문득 지안이 건넸던 응원의 말을 혼잣말로 되뇌기도 한다(8화). 그리고 급기야 동훈은 광일과 싸우고(9화)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는 일정을 함께 하며, 살인 이력이 알려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지안에게 “니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냐.”라며 응어리를 풀어준다(10화).

지안이 도망치게 된 전후 상황에서는, 편집에 의해, 물리적 거리에 아랑곳없이 정동하고 정동되는 이들의 마음이 적극적으로 연출된다. 동훈이 지안을 찾아 해매는 장면 위로 도청 중인 지안에게 들리는 것처럼 동훈의 발자국 소리가 울린다(14화). 도청 솟의 매개 없는 이 울림으로, 동훈과 지안의 마음은 함께 울리는 듯하다. 동일한 시간대에서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교차편집으로 보여주며 이들의 내밀한 소통 순간

28) 느리게 움직이는 전경과 빠르게 움직이는 배경을 한 화면 속에 모순적으로 담아내어 비현실적인 감각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기법으로, 왕가위 감독의 <중경삼림>에서 인상적인 영상언어로 사용되었다.

을 연출하기도 한다. 도청 중인 지안이 동훈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문자를 보내는 장면과 골목길을 걷는 동훈이 “고맙다. 옆에 있어줘서”라고 혼잣말하는 장면이 이어지고(13화), 동훈이 공중전화가 있는 곳에서 지안을 찾는 장면과 동훈을 피해 도망치던 지안이 “잘못했습니다”를 반복하며 오열하는 장면이 교차편집되고(15화), 지안이 정혜에게 이 동네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말하는 장면과 동훈이 걸으면서 혼잣말로 “행복하자”고 하는 장면이 이어지며(15화) 시공간에 구애되지 않는 이들의 교감이 드러난다. 용서를 구하고 위로하는 말들이 서로에게 들렸을 리 만무하지만, 느껴졌을 것으로 여겨지도록 연출된 것이다.

모방이라는 행동 속에서 마음이 감지되기도 한다. 모방은 신체에서 저신체로 전달되는 신경학적 수단이 작동하는,²⁹⁾ 소개체적 감응이 전달되는 상황이다. 이 드라마에서 윤희의 공중전화 사용은 지안의 공중전화 사용으로 모방되며, 인물들의 소개체적 감응 상황을 현시한다. 윤희는 자신의 사무실 앞 공중전화로 준영과 연락하곤 했고, 동훈은 준영이 수신불가인 특정 전화와 자주 통화한 것을 발견하고 해당 번호의 공중전화 부스를 찾아갔다가 윤희를 만나 상황을 직감하게 된다. 그리고 지안은 윤희의 비밀이 노출되는 이 현장을 조성하고, 관찰한다(5화). 지안도 나중에 공중전화를 사용한다. 박동운 상무의 집요한 추적으로 덜미를 잡혀 도망치게 되자, 도청했다는 걸 아는 동훈에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지안은 공중전화로 동훈에게 연락하고 고백한다(14화). 지안의 공중전화 사용은, 윤희처럼 동훈을 속이고 기망했다는 잘못을 동훈에게 드러내는 것이고, 비밀이어야 할 진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자신을 찾아달라고 응급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동훈은, 윤희가 사용하던 공중전화 부스를 찾아낸 것

29) 모방 소통의 신체적 비언어적 차원들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들 속에 모방 소통이 골고루 스며들어 있음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다. 미메시스에서 감각의 교차양식화 또는 공감각이 중요하다. 시각 이외의 감각들에 대한 모방 소통이 정동적 사회유대감을 발생시킨다. 안나 김스, 앞의 책, 316면, 330-331면.

처럼, 지안이 사용한 공중전화 부스가 있는 곳을 찾아가 황망하게 두리번 거리다, 때마침 걸려온 촌대의 전화를 받고 골목길을 질주하며 지안에게 간다(15화). 지안과 동훈은, 공중전화 사용 모방에 의해, 비밀스럽게 감응하는 것이다.

고립된 채 침묵하던 지안과 동훈은 몸의 소리에 대한 몸의 반응으로 소통하며, 서로의 몸의 소리에 공명하는 친밀한 관계가 된다. 소리는 진동이고 떨림이다. “존재가 진동하면 주변에는 장의 파동이 만들어지며, 존재의 떨림을 우주 구석구석까지 빛의 속도로 전달한다.”³⁰⁾ 숨소리를 내는 몸, 타인의 숨소리에 반응하는 몸은, 정동적 진동수 조율 상태의 몸, 공명하는 몸이다. “서로 간의 정동적 주파수 조율 속에서 기능적으로 부여된 역할이나 외재적인 규정을 넘어 관계의 내재적 양태들을 창발적으로 형성한다.”³¹⁾ 의식화 언표화되지 않은 이들의 관계 양태는 딱히 하나의 감정으로 수렴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채로 기쁘고 좋은 상태로, 또는 가족적인 것의 계기이자 토대일 모종의 감정적 상태로 이행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적 친밀감으로 수렴될 수 있는 이 신체매개적 정동은, 생활 근거지가 수시로 변하는 글로벌 도시 생활자들의 일상에서 차츰 휘발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연애 감정으로 돌연 발화될 수도 있다. 인간 몸의 가장 내밀한 움직임일 신체매개적 정동은 변화 가능성에 무한히 개방된다.

4.2. 몸냄새와 몸싸움, 그리고 모방

아저씨들의 일상은 시끄럽고 비릿하다. 작은 식탁에 빼곡하게 둘러앉은 40대 아들들은 엄마의 애정을 저울질하며 말싸움을 하고, 노모는 늙은 아들들 도시락을 싸고 곰국을 끓이며 쉬지 않고 갖가지 음식냄새를 피운

30) 김상욱, 『떨림과 울림』, 동아사이, 2018, 172면.

31)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옮김, 『정동정치』, 갈무리, 2018, 357면.

다. 삼형제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든지 술 취한 채 골목길을 걷는다. 어두운 골목에 등 돌린 채 방노 중인 맏이와 엉거주춤한 채로 망보는 두 아우가 짝 차게 프레임된 숲이 이어지며(1화) 거리의 눅눅한 냄새를 퍼뜨린다. 비릿한 오줌냄새는 청소 현장의 토사물 냄새로 이어진다. 빌라 계단에 그득한 토사물은 줌처럼 가셔지지 않을 역한 냄새를 퍼뜨리고(4화), 우리의 이 토사물을 치우던 기훈은 유리의 트라우마를 풀어주는 연애를 시작한다. 삼형제는 오줌냄새를 풍기고 토사물 냄새를 문힌 채 움직인다.

아저씨들은 테스토스테론 냄새를 풍기는 남성호르몬 공동체이다. 태국에서 정희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삼형제와 제철, 진범, 권식 등이 득달같이 모여들어 술 축제를 하는 날, 망치로 벽을 부수며 주택업자를 제압한 동훈도 그 주택업자에게 사과를 받은 상훈도 기분 좋게 모여든다. 복분자술을 채운 잔을 들고 ‘테스토스테론’을 제창하며 원샷을 이어가는 이 무리들의 흥청거림은, 취기와 혼미함을 표현하듯 스텝프린팅 기법으로 연출된다(4화).

아저씨들은 서로에게 몸냄새를 풍기며 서로의 몸을 느낀다.³²⁾ 형제청소방 자축 차 삼형제가 참치집에 간 날, 기훈은 “몸으로 태어나서 요즘 처음으로 몸을 쓰고 몸을 느낀다.”라며 흥분한다(9화). 아저씨들은 몸싸움으로 체취를 발산하고 뒤섞는다. 동훈은 광일을 찾아가 몸싸움을 하며 지칠 때까지 때리고 후련해질 때까지 맞는다. 몸싸움 소문만으로도 흥분한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뛰어나오고, 기훈도 씩씩거리며 질주한다. 정희네에 바글바글 모여 각자의 활약상을 늘어놓는데, 동훈은 “간만에... 온 몸의 세포들이 놀라서 번쩍 깬 거 같애”라며 슬쩍 웃는다(10

32) 체취는 아포크린선에서 흘러나오는데, 이 아포크린선은 태어날 때는 작지만 사춘기 때 크게 발달한다. 겨드랑이, 얼굴, 가슴, 생식기, 항문에는 많은 아포크린선이 흩어져 있다. 어떤 연구자들은 키스할 때 느끼는 기쁨은 주로 향기가 풍부한 상대방의 얼굴을 냄새 맡고 애무하는 기쁨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사실 키스는 연인이나 친척 혹은 친구의 냄새를 오랫동안 맡는 행위인 것이다.” 다이앤 애커먼, 백현미 옮김, 『감각의 박물학』, 작가정신, 2023, 48면.

화). 먹고 마시고 체취를 교환하는 후각 공동체이다.

후계 공동체는 축구를 통해 문화화된 몸싸움을 의례처럼 이어간다. 조기축구회의 축구 시합이 세 차례 배치되는데, 이들 중 앞의 두 축구 시퀀스는, 동훈과 윤희의 결혼생활과 교차되도록 배치되며, 동훈이 속한 남성 공동체의 정동 활성화 지점과 동훈의 가족 감정이 직면한 문제 지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윤희의 외도를 안 다음날 열린 축구 시합 시퀀스는, 공간 준다고 끝내고 중간에 나와 버린 동훈의 모습과 운동장에서 떨어진 난장판이 교차 편집되며 진행된다(6화). 윤희의 고백을 듣고 감정을 터뜨린 다음날에 열린 축구 시합 시퀀스는, 동훈이 빠르게 달리며 골을 넣기도 하는 모습과 윤희와의 말다툼 순간들이 교차 편집된다(11화). 이 두 축구 시퀀스는 동훈이 밥 먹고 몸 부대끼는 가족다운 일상을 아내가 아니라 형제나 지역 토박이 남자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동훈과 윤희의 근원적인 갈등 지점을 드러낸다. 세 번째 축구 시퀀스는 윤희와의 결혼생활이 후경으로 빠진 상태에서 이뤄진다. 지안의 할머니 장례식장에 문상객으로 온 조기축구회 회원들과 동훈은 달밤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축구를 한다(16화).

퀵서비스로 발신자가 밝혀지지 않은 누런 봉투가 동훈에게 두 번 전달되는 상황에는, 모방 소통이라는, 인물들의 초개체적 감응이라는 이행이 잠재한다. 내려티브 상 동훈에게 퀵서비스된 누런 봉투는 사건의 트리거이자 해결의 계기이다. 처음 배달된 것은 박동운 상무에게 전달될 뇌물용 상품권이 잘못 온 것으로(1화), 동훈이 사내 권력 다툼에 휘말리고, 동훈과 지안이 접촉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두 번째로 배달된 것은 도청 녹음 파일이 저장된 유에스비가 가득 든 일수가방으로(16화), 이 녹음파일이 준영의 거짓을 들추는 증거가 되고, 지안은 경찰 조사에서 풀려나게 된다. 여기서 광일이 일수가방을 퀵서비스로 배달시킨 행위는 뇌물용 상품권 배달에 대한 전복적 모방이다. 광일은 지안의 도청 녹음파일을 통해 동훈과 지안의 관계를 이해했고, 준영의 죄를 드러내고 지안을 구제할 수 있

도록 녹음과일을 동훈에게 보낸 것이다. 뇌물을 쥐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덧씌워진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광일 자신에 대한 전복적 행위이기도 하다. 광일은 동훈과 지안의 관계를 파괴하려 지안이 상품권 든 봉투를 도둑질했다고 동훈에게 제보한 바 있다. 동훈과 지안의 관계를 의심하고 질투하며 적의를 분출했던 광일은, 결정적으로는 동훈과의 몸싸움 이후 지안을 돕게 될 행동을 감행한다(16화). 몸싸움으로 표출되고 잠재되는 감응의 힘이다.

이렇게 후계동 아저씨들은 밥 먹고 술 마시고 축구 시합과 몸싸움으로 체취를 교환하며 흥분과 활기를 공유하는 후각 공동체이다. 후각은 미각과 더불어, 이성이나 논리의 영역과는 거리가 먼, 원시적이고 동물적인 감각이고 생명과 밀접한 감각이고 가장 직접적인 감각이다.³³⁾ 후각은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에 바로 연결되어 무의식중에 의도나 노력 없이도 기억되고, 여러 기억이 함께 연결되어 재생된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는다. 냄새는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고, 후각의 암시적인 기억의 특성은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까운 사람의 냄새에 익숙해지는 것은 동물적인 감각 차원의 소통이고, 지금 여기라는 상황과 맥락에서 출현하는 정동의 전염이고, 정동들이 뒤섞이면서 만들어지는 힘들의 결합이다.³⁴⁾

33) “냄새는 모든 감각 가운데 가장 직접적이다.……후각기관에서 어떤 냄새를 맡으면 그것은 대뇌피질에 신호를 보내고 변연계에 곧장 메시지를 보낸다. 변연계는 오래되고 신비한 기관으로……그 속에서 우리는 느끼고, 욕망하고, 창조한다. 다른 감각과 달리 냄새는 해석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냄새의 효과는 즉각적이며, 언어나 사고 혹은 변역에 의해 희석되지 않는다. 냄새는 강렬한 이미지와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압도적인 향수를 불러일으키곤 한다” 위의 책, 26-28면.

34) 질 들뢰즈, 허희정·전승화 옮김, 『디אל로그』, 동문선, 2005, 65-103면.

5. 나오는 글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족의 조형 양상을 1997년 IMF 경제위기 전후로 나눠 살핀 연구에 따르면, 경제위기 이전까지는 국가주도의 산업화 전략에 가족이 동원 포섭되면서 가족주의가 강화한 반면, 경제위기 이후에는 신자유주의가 가족 삶을 관통하면서 가족의 재생산 및 돌봄 공백이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³⁵⁾ 가족주의 강화 시대에서 가족 위험 시대로의 변화는, 이 두 시대를 각각 다른 텔레비전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와 <나의 아저씨>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응답하라 시리즈와 <나의 아저씨>는 신자유주의 시대라 일컬어지는 2010년대에 방영되었는데, 드라마의 배경 시대와 가족상이 전혀 다르다. <응답하라 1997>(2012), <응답하라 1994>(2013), <응답하라 1988>(2015-2016)은 서울 올림픽이 열린 1988년부터 1997년 IMF 경제위기 직전까지를 소환하며, 핵가족 중심 가족주의의 여러 측면들을 재현했다.³⁶⁾ 반면 <나의 아저씨>(2018)는 IMF 이후 글로벌 신자유주의 경제 환경이 확대되고 1인 가구(가족)가 우세종이 되고 있는 방영 당시의 한국의 가족상을 다룬다. <응답하라 1988>의 쌍둥동 골목 공동체와 <나의 아저씨>의 후계동 공동체가 비견되곤 하는데, 드라마에 설정된 시간상 좌표를 생각할 때, 이 가

35) 김혜영, 앞의 글, 24-35면.

36) 응답하라 시리즈를 분석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백소연, 「살아남은 자들의 기억, 1990년대 재현의 양상: tvN <응답하라 1994>(2013)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0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4; 권은진, 「신자유주의 시대의 문화상품-1990년대를 재현하는 향수/복고 영화와 드라마」, 『영상예술연구』 25호, 영상예술학회, 2014; 양승국, 「응답하라 연작의 서사 전략과 텔레비전 드라마의 서사성」, 『관악어문연구』 41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6; 김현경, 「신자유주의 시대의 포스트페미니즘 가족서사: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2권 1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7; 백소연, 「가족이라는 레트로토피아-텔레비전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65집, 한국극예술학회, 2019.

족적 공동체의 의미망은 썩 다르다. 쌍문동 골목 공동체는 1988년 서울의 한 근대 도시 공동체이고, 10대 전후의 자식들을 돌보는 40대 전후 어머니들 중심의 핵가족 공동체이다.³⁷⁾ 그리고 마지막 화에 기입된 현재 시점을 고려한다면 그 현재 시점에서 회고되는 20여 년 전 과거의 공동체이다. 그런데 <나의 아저씨>에서 후계동 공동체는 초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후기 근대 도시와 나란히 배치된 상대적으로 낙후된 근대적 도시 지역 공동체이고, 직장에서 내몰린 아저씨들과 경제적 불안정성 때문에 생긴 특이 형태의 혈연가족들이 가까스로 보듬고 있는 현재의 공동체이다. ‘응답하라 시리즈는 가족주의 강화 시대라, <나의 아저씨>는 가족 위협 시대를 재현한 것이다.

<나의 아저씨>는 혼자 가족의 확대와 돌봄 문제의 부상, 가족의식 변화를 다층적으로 드러내며 개인화 시대의 가족 변화를 시사한 ‘이후의 가족드라마’이다. 이 드라마에는 핵가족 가구가 거의 없고, 가족드라마가 다루어 온 젊은 부부의 애정 문제나 자녀의 성장 스토리를 다루지 않는다. 캥거루가족과 조손가족이 혈연가족의 변이태로, 후계 패밀리가 지역공동체의 잔존태로 등장하는 가운데, 혼자 사는 성인들과 장노년층이 직면한 경제적 감정적 상호의존의 위기 상황을 다룬다.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돌보고 감당하는 과업의 수행 속에서 (유사)가족적 유대가 생겨나는 상황을 드러낸 것이다. 후계동 공동체가 낭만화됨으로써 한국의 가족의식에 여전한 부계 혈통주의, 가족부양의식 등에 가치를 부여하는 듯 보이지만, 후계 패밀리가 자신들이 성장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사는 40-50대 아저씨들의 것으로 계도화됨으로써 그러한 가족의식이 제한된 세대만의 것임을 또한 드러낸다. 지역공동체도 남성중심적 가족주의도 개인화 시대의 파고에 휩쓸리며 ‘탈자연화’ 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아저씨>는, ‘이후의 가족드라마’답게, 가족 감정을 결혼/혈연으

37) 백소연, 앞의 글, 2019, 21-22면.

로 연결된 구성원들 사이의 감정으로 환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결혼/혈연과 무관한 관계들 사이에서 경험되는 가족적 친밀한 느낌을 다룬다. 숨소리라는 몸의 진동에 주파수를 맞추는 몸의 공명, 몸냄새를 발산하고 뒤섞는 몸들의 공조 속에서 정동하고 정동되는 관계가 창출된다. 타인의 몸을 느끼는 몸들, 일상을 공유하는 몸들의 소통과 이행 속에서, 친밀과 애착이라 이름할 만한 감정이 생길 가능성이 잠재하는 것이다.

숨소리와 몸냄새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몸의 감응 표현과 강조는, 가족의 의미와 본질에 대한 이해가 혈연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혈연 공동체에서 감정 공동체로 변모³⁸⁾하고 있는 우리 시대 가족드라마로서 맞춤형 특이점이다. 친밀과 애착이라는 가족 감정 출현을 혈연/결혼을 매개로 한 가족 구성과 분리시킴으로써, 역설적으로 가족이야말로 일상을 이루는 자잘하고 무한한 정동 속에서 출현하는 공동체임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또한 근위감각 단위의 몸의 소통을 강조함으로써, 혼자 사는 사람들이 부유하는 시대, 누구와도 교류 없이 누구라도 간단히 혼자 살아갈 수 있게 된³⁹⁾ 이 시대의 결핍 지점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가족적인 것’의 구성과 실천을 매개할 수 있는, ‘정동-기계’다운 드라마의 힘이다.

38) 김종길·박수호, 「디지털 시대의 ‘가족혁명’-신화인가 현실인가?», 『사회이론』 38, 한국사회이론학회, 2010, 157-158면.

39) NHK무연사회 프로젝트팀 저, 김범수 옮김, 『무연사회-혼자 살다 혼자 죽는 사회』, 용오름, 2012, 240면.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박혜영 극본, 김원석 연출, <나의 아저씨>(총 16부작), tvN, 2018.03.21.-2018.05.17.
_____, 『나의 아저씨』(2책), 세계사컨텐츠그룹, 2022.

2. 단행본

- 김상욱, 『떨림과 울림』, 동아시아, 2018.
- 류도향 외, 『가까운 사이』,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 장경섭, 『내일의 종언?-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집문당, 2018.
- 정성훈, 『가족과 국가 이후의 공동체』, 보고서, 2023.
- 야마다 마사히로, 정화경 옮김, 『우리가 알던 가족의 종말: 오늘날 일본가족의 재구조화』, 그린비, 2010.
- _____, 함인희 외 옮김, 『가족 난민』, 그린비, 2019.
- 다이앤 애커먼, 백영미 옮김, 『감각의 박물학』, 작가정신, 2023.
- 데스몬드 모리스, 박성규 옮김, 『인간의 친밀 행동』, 지성사, 2003.
- 데이비드 하비, 최병두 옮김,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한울아카데미, 2007.
-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옮김, 『정동 이론』, 갈무리, 2015.
- 블프 바그너, 정미라 옮김, 『가족?』, 푸른나무, 2008.
-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옮김, 『가상계: 운동, 정동, 감각의 아쌍블라주』, 갈무리, 2011.
- _____, 조성훈 옮김, 『정동정치』, 갈무리, 2018.
- 안토니오 다마지오, 임지원 옮김, 『스피노자의 뇌』, 사이언스북스, 2007.
- 울리히 벡, 홍성태 옮김, 『위험사회』, 새물결, 1996.
- _____, 홍찬숙 옮김, 『자기만의 신』, 길, 2013.
- 울리히 벡 외, 한상진·심영희 편저, 『위험에 처한 세계와 가족의 미래』, 새물결, 2010.
- 질 들뢰즈, 허희정·전승화 옮김, 『디אל로그』, 동문선, 2005.
- _____, 박기순 옮김, 『스피노자의 철학』, 민음사, 2015.
- 캐슬린 스투어트, 신혜경 옮김, 『투명한 힘』, 밤의책, 2022.

- B. 스피노자, 강영계 옮김, 『에티카』, 서광사, 2008.
NHK무연사회 프로젝트팀, 김범수 옮김, 『무연사회-혼자 살다 혼자 죽는 사회』, 용오름, 2012.
Hurley, Erin, *Theatre & Feeling*,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2010.

3. 논문 및 기타

- 구은정, 「공동체 재현의 정치학-〈나의 아저씨〉의 레트로토피아 vs. 〈갯마을 차차차〉의 퓨토피아」, 『여성학연구』 제32권 제1호,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22.
- 권두현, 「‘관계론적 존재론’의 정동학-〈나의 아저씨〉의 안팎에서 벌어진 젠더정치의 기술적 차원에 관하여」, 『한국극예술연구』 66집, 한국극예술학회, 2019.
- 권명아, 「비교 역사적 연구를 통해 본 정동 연구의 사회정치적 의제: 여자 폐공포와 다스려질 수 없는 자들의 힘」, 『여성문학연구』 39,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 권은선, 「신자유주의 시대의 문화상품-1990년대를 재현하는 향수/복고 영화와 드라마」, 『영상예술연구』 25호, 영상예술학회, 2014.
- 김성하 외, 「신캐거루족의 두 얼굴」, 『이슈&진단』 제250호, 경기연구원, 2016.
- 김세준, 「공동체적 윤리에 대한 초월적 상상력 고찰-TV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대상으로」, 『스토리&이미지텔링』 21집, 건국대학교 스토리엔이미지텔링연구소, 2021.
- 김종길·박수호, 「디지털 시대의 ‘가족혁명’-신화인가 현실인가?」, 『사회이론』 38, 한국사회이론학회, 2010.
- 김창욱, 「미수미의 경험주의적 정동이론 비판-감정 연구와 문학 연구의 생산적 만남을 위하여」, 『한국시학연구』 63호, 한국시학회, 2020.
- 김현경, 「신자유주의 시대의 포스트페미니즘 가족서사: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2권 1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7.
- 김혜영, 「‘동원된 가족주의’의 시대에서 ‘가족 위협’의 사회로」, 『한국사회』 17(2),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6.
- 김훈순·김명혜, 「텔레비전 드라마의 가부장적 서사전략」, 『언론과 사회』 12호, 사단법인 언론과사회, 1996.

- 류도향, 「가족적인 것의 개념: 연결의 정치학을 위한 시론」, 『가족과 문화』 제33집 4호, 한국가족학회, 2021.
- 문강형준,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조현민과 이명희의 갑질, <나의 아저씨>」, 『문학동네』 95호, 2018.
- 박명진, 「한국영화와 가족담론-1960년대와 2000년대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16, 우리문학학회, 2003.
- 박현선, 「정동 이론적 갈래들과 미적 기능에 대하여」, 『문화과학』 86호, 문화과학사, 2016.
- 박혜경, 「경계위기사 가족주의 담론의 재구성과 성평등 담론의 한계」, 『한국여성학』 27권 3호, 한국여성학회, 2011.
- 백경선, 「김수현과 노희경 가족드라마의 대중성 비교 연구-2000년대 작품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 _____, 「김수현 가족드라마의 가족 담론 고찰」, 『한국극예술연구』 50, 한국극예술학회, 2015.
- 백소연, 「살아남은 자들의 기억, 1990년대 재현의 양상: tvN <응답하라 1994>(2013)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0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4.
- _____, 「가족이라는 레트로토피아-텔레비전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65집, 한국극예술학회, 2019.
- 안미영, 「현대문학 연구에서 정동 이론의 성과와 활용」, 『어문연구』 95집, 어문연구학회, 2018.
- 양승국, 「응답하라 연작의 서사 전략과 텔레비전 드라마의 서사성」, 『관악어문연구』 41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6.
- 윤석진, 「한국 텔레비전 가족드라마의 가족자유주의 양상-KBS2 TV주말연속극을 대상으로」, 『어문논총』 34호,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19.
- 이미진, 「가족구조의 변화와 노인돌봄정책」, 『월간 복지동향』 219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17.
- 이재준, 「혐오의 정동」, 『현상과 인식』 149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21.
- 조항제·홍찬이·강승화·문소영, 「텔레비전 멜로드라마에서 나타나는 가족 표현의 변화」, 『한국방송학보』 21(6), 한국방송학회, 2007.
- 함돈균, 「한국문학사 또는 한국 현대시와 정동(affect) 담론의 양태들-주체화, 운동, 윤리학」, 『상허학보』 49, 상허학회, 2017.

Abstract

‘Post-Family Drama’ and the Affect of Intimacy
—Focusing the TV drama *My Ajeossi*

Baek Hyunmi

This paper examines the television drama *My Ajeossi* as a ‘post-family drama’ that represents the family in the age of individualization. Labeling the drama a ‘post-family drama’ is based on the following two singularities. First, the drama deals with a ‘post-family’ situation in which the nuclear family has lost its status as a norm. In this drama, we see neither the three-generation extended family nor the nuclear family consisting of a married couple and their unmarried children that has been the focus of precious family dramas. Instead, unusual forms of kinship families, single-person households, and local communities, created by economic instability, practice familial bonds by taking on the task of caring for old age, illness, and death. Secondly, it embodies bodily affects and the intimacy based on them, suggesting the foundations for the emergence of the familial.

As a ‘post-family drama,’ these features reveal a reality in which the basis or trigger of familyhood is shifting from blood ties and marriage to livelihood and housing sharing, and the focal point of familial relationships is adjusting to the performativity of mutual care and interdependence. In the age of individualization, it effectively dramatizes that family in the age of individualization is not an institutional designation, but is constituted by the density of body-mediated affects, and becomes an emotional community through the exchange of mutual intimate things.

Key words: Affects, Intimacy, *My Ajeossi*, Post-Family Drama, The familial

접 수 일: 2023년 7월 10일

심사기간: 2023년 7월 15일~2023년 7월 26일

계재결정: 2023년 8월 14일